

건축계의 경쟁력을 위한 길

A Way for Competitiveness of Architectural Industry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건축계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아니 변화를 두려워하는 듯하다.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만 해도 그렇다. 2년여의 실무협상을 거쳐 각 단체의 대표단이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왜 통합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까지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계의 만행과 같은 꾀꿇함으로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활동과 실제업무를 통한 건축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와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새건축사협의회는 건축개혁을 통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연구, 논문, 토론 등을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각 단체 활동들은 삼원색의 색 조합처럼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부딪히며 서로 다른 변화된 형태와 이론들을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국제, 법제, 전시 등의 활동들은 제3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삼중의 모습으로 각 단체의 대표성만을 고집하며 주장하곤 했다. 건축학과 5년제를 시작하지 7년이 되었고 건축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지 4년이 되어 가건만 그런 국제기준의 건축사법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부조화의 모습이다.

우리 건축계의 가장 큰 우선적 과제는 내부의견의 통일이다. 국제, 법제, 전시활동 등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이다. 더 이상 정부나 국회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또는 국내의 대형 전시장에 가서 건축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속단체의 대표자 역할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통합된 하나의 단체 대표가 되면 자연히 다른 의견도 없어 질 것이 아닌가?

건축계가 하나 된 단체로 통합을 이룬 후에 한 마음으로 선결해야 할 주요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설계발주제도의 전반적 개선, 두 번째는 건축사업무대가의 현실화, 세 번째는 건축업무영역의 다양화이다.

첫 번째 과제인 국가와 공공기관의 설계발주제도는 입찰방법에 의한 뽑기 형태의 운찰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P.Q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실적에 의한 자격제한방법이 설계경기와 턴키입찰방법 등 거의 모든 발주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발주제도는 기득권자들의 업무연속과 공무원의 수월한 발주를 위해서는 바람직 할지 모르지만 신인건축사들에게는 발주에 참석할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제도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건축계도 힘을 모아 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과제는 건축사업무대가의 현실화이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중 민간업체의 대부분 설계, 감리비 거래가격은 20년 전에 비하여 같거나 더 낮은 금액이다. 시·도 건축사회에서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을 했더니 카르텔이니 담합이니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날을 들고 있다. 덤핑에 의한 부실설계 및 감리와 그로 인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적 피해는 생각지도 않는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건축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국가는 무엇이 건축의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길인지 고심해야 한다. 소방과 전기가 별도 법에 의하여 발주하더니 이제는 구조까지 독립하겠다고 청와대에까지 청원을 하며 난리를 치고 있다.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온갖 책임은 다 지고 있는 바보들의 모임이 건축사 집단이다.

세 번째 과제는 건축업무영역의 다양화이다. 도시관련 업무가 도시계획의 명분으로 어느새 토목의 일부가 되어 버렸고 건축디자인을 디자인전문회사가 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하여 건축사 업무 근간을 흔들기도 했다. 지금도 디자인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 법안에는 공간환경이 포함되어 일반 디자이너의 몫인 듯 포장되어 있다. 건축물의 관리도 건축사들에 의하여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하건만 현재까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그린 홈 200만 세대 계획에도 건축사의 의견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친환경 건축의 인증과 교육도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뿐 아니라 법원의 감정도 건축사가 본연의 전문가이다. 부동산 개발업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까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너무나 많다.

이런 모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쓸데없는 논리의 소모전이 건축계 내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뭉쳐서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우리 기성 건축인들의 어려움을 후배, 제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서도, 후진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건축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못다 푼 과제들은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 ■



전영철 / Jeon, Young-cheol, KIRA
(주)열린모임 차 건축사사무소

-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 중앙심의위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 자문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